

SMILE-2017-A19

ISSUE BRIEF 2017

vol.6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운영



ISSUE BRIEF 2017

vol.6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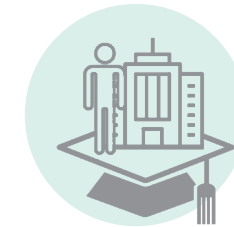


contents

‘대학’이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02
‘아카데미’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04
다른 명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06
시사점	08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취미교양’ 위주에서 ‘시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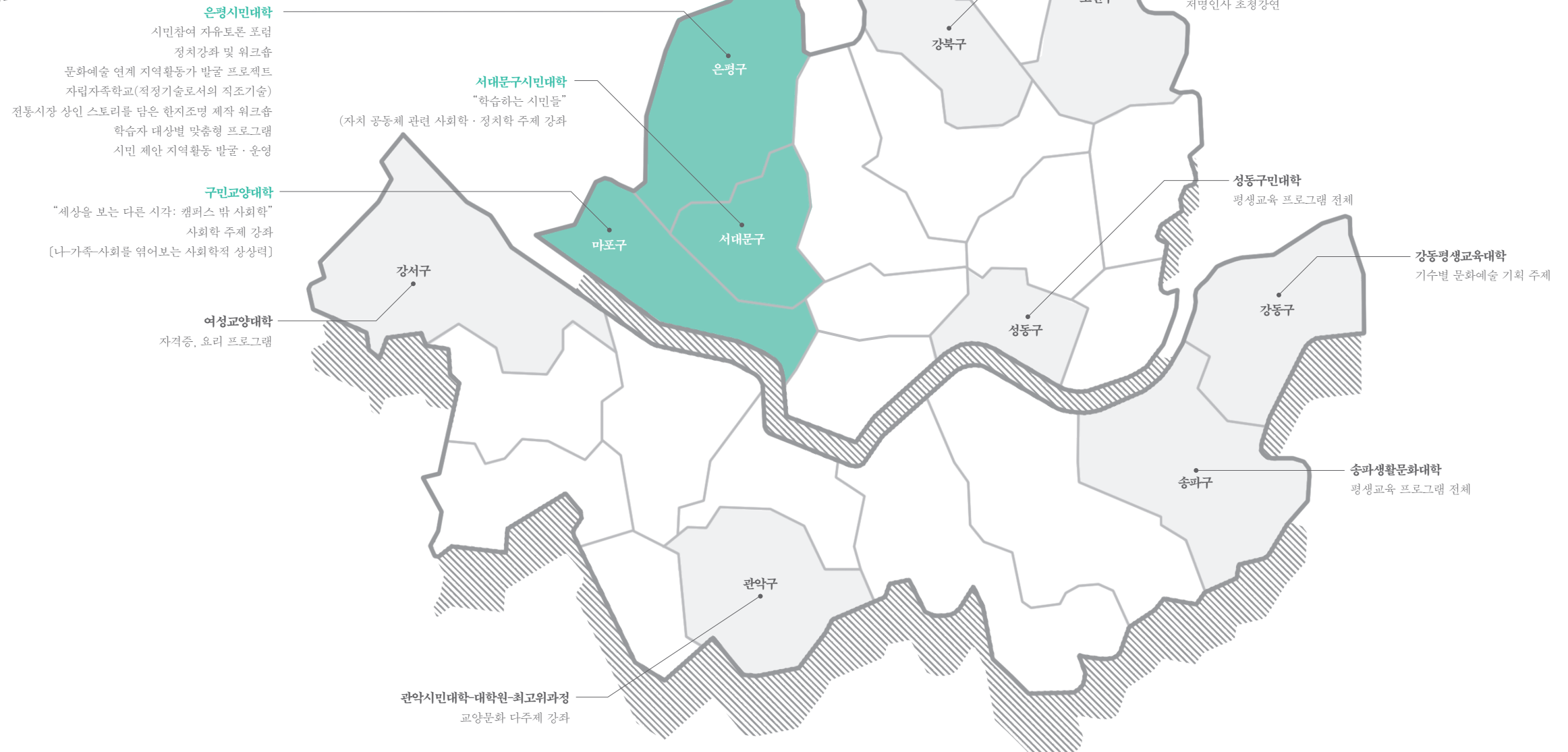
서울시는 기존 시민대학을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해,
수준 높은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을 제공 예정
다만, 각 자치구는 ‘대학’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서울시민대학이 이것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의문 많음



본 자료는 올해 9월 제2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시민교육의 정체성 모색”(강대중 · 석정아, 2017)의 자료를
자치구 담당자 조사를 통해 수정 · 보완해 재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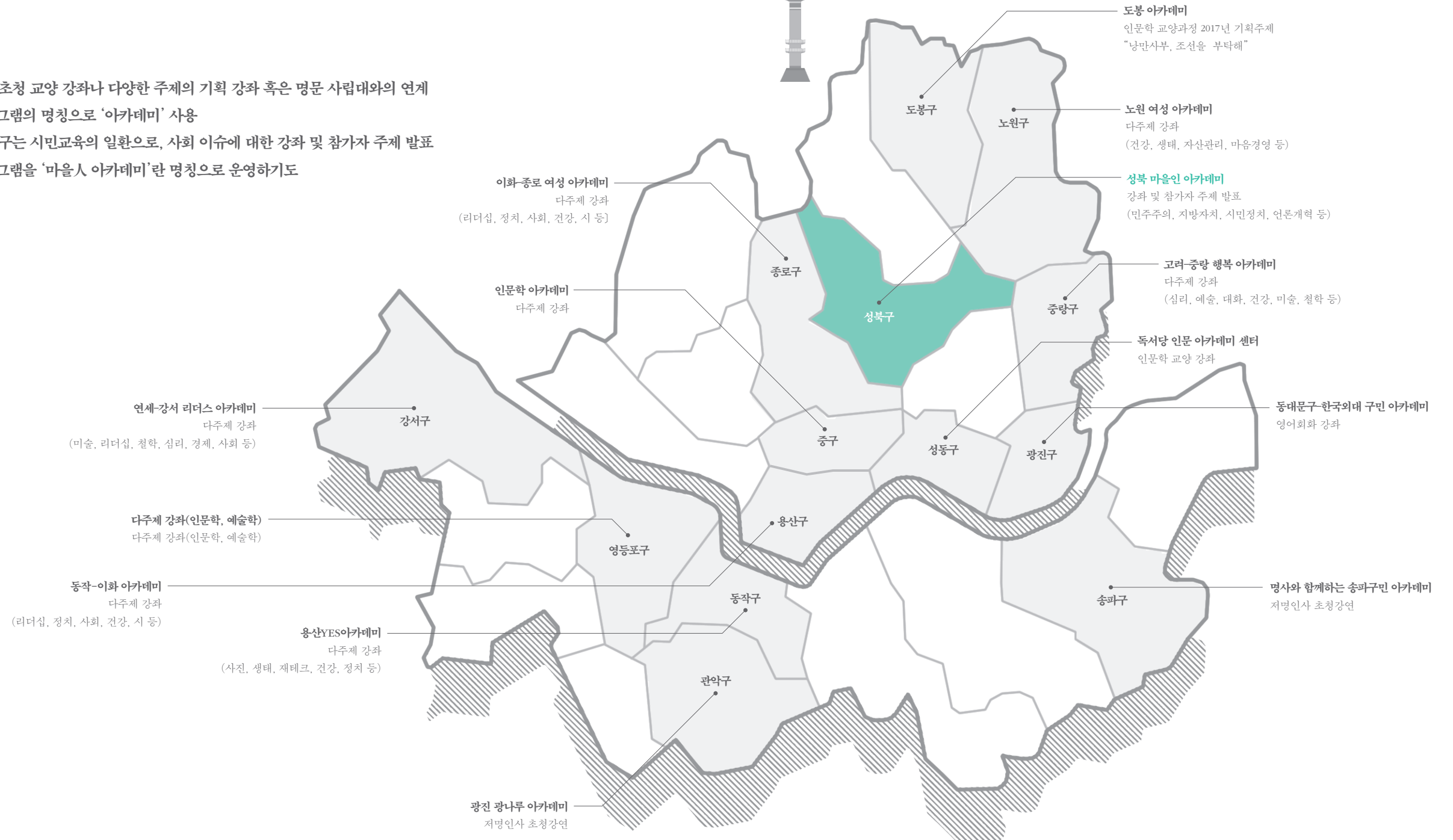
1. '대학'이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 자치구 제공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로 '대학'이란 명칭 사용
-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나 명사 초청강연의 명칭을 '대학'으로 붙이기도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목적의 사회과학 프로그램 운영
- 은평시민대학은 일상의 문제와 질문을 참여해 해결해 가는 일본 '시부야 대학'형의 프로그램 개설하기도



2. '아카데미'란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 명사초청 교양 강좌나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좌 혹은 명문 사립대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아카데미' 사용
- 성북구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강좌 및 참가자 주제 발표 프로그램을 '마을인 아카데미'란 명칭으로 운영하기도



3. 다른 명칭의 자치구 시민교육 프로그램

- 다수의 프로그램이 지역리더를 양성 목적으로 기획·운영됨
- 예비리더를 대상으로 민주적 소통과 토론,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치
- 일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주제별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도 함

마포시민학교(시민참여교육)
"민주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8가지 질문",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민에게",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미래 담론"

서울대 - 구로구 시민 민주학습 교실
시민교육기획가 양성강좌 및 워크숍, 모둠별
교육 디자인 소모임, 결과 발표회 등

르네상스 용산 지역활동가 양성과정
평생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소통,
동기부여, 스피치 기법 등 교육

용산 가꾸미 양성과정
지역 생태자원을 가꾸는 체험형 수업

협치를 위한 소통의 기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
노동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마을리더로서 촉진자 되기
민주적 의사 결정 및 토론에 대한 강좌 및 수강생 발표

성북구는 대상, 주제,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진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
• 대상: 청년, 청소년 코디네이터, 부모 등
• 주제: 민주시민교양, 헌법, 속의 민주주의, 마을계획 등
• 방법: 글쓰기, 스터디 서클, 토크 콘서트, 열린 토론 의제 발굴 연습 등

시민 역량 지원 프로그램 "문전성시"
시민의제와 글쓰기 강좌 및 민주시민 감수성 향상 워크숍 등)

예비마을 계획단 교육
강의, 견학, 토크쇼
(마을계획 모의 의제 발굴 및 실행 계획 수립 등)

마을시민학교
마을, 공동체, 민주주의, 타자, 관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민주시민교양 강좌

국민참여 개헌을 준비하는 헌법교육
헌법의 가치, 의미, 역사를 살펴보고 실제 헌법조항을 만들어보는 시민법률 교양

청소년활동 코디네이터 역량강화과정
청소년 활동을 촉진, 지원할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즐거운 부모클럽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가족소통법, 육아, 교육 및 놀이 방법
심화과정: 부모커뮤니티 활동 촉진자 과정

시민공론조사위원회 및 모의시민의회
속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워크숍, 열린토론회를 결합한 시민참여 학습 프로그램

민주주의 인생학교
글쓰기, 책읽기(독서토론)를 통한 민주주의 스토리서를 활동 역량 강화 과정

청년 마을활동가 포럼
청년 마을활동가를 위한 도시문제 주제별 전문가 특강 및 토크콘서트(도시정책,
젠트리피케이션, 시민자산화, 토지정의, 도시재생 등)

시사점

1. '대학'이나 '아카데미'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 많음

- 자치구 제공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로 '대학'이란 명칭 사용
-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나 명사 초청강연의 명칭을 '대학'으로 붙이기도
- 명사초청 교양 강좌나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좌 혹은 명문 사립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아카데미' 사용

2. 일부 자치구는 명칭에 걸맞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중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시민대학은 시민교육 목적의 사회과학 프로그램 운영
- '은평시민대학'은 일상의 문제와 질문을 참여해 해결해 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설
- 성북구는 대상, 주제,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3.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명칭이 아닌 내용 면에서 충실히 운영된다면 충분히 차별점 가질 것

- 자치구 프로그램은 '대학'이란 명칭을 브랜드 수준에서만 사용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자치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높은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을 제공한다면 내용과 기능적 측면에서 충분히 차별점 가질 것
- 성북구와 은평구의 사례를 참조해, 시민참여형으로 대상과 주제, 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나갈 필요 존재



ISSUE BRIEF 2017-6

ISSUE BRIEF 2017-6

발행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발행일 | 2017년 12월
디자인 | 마가리_변영옥, 이한수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소 | (04168) 서울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전화 | 02-719-6093
팩스 | 02-2149-1268
홈페이지 | <http://smile.seoul.kr/>